

# 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지?

## 해외불교칼럼

일부 서구인들은 불교를 종교보다는 오히려 철학이자 교육(education)이라 여긴다. 이를 반영하듯, 몇 달 전 세계 굴지의 인터넷 토론방에 이런 질문이 됐다.

“왜 어떤 이들은 불교가 종교가 아니라 말할까?(Why do some people say Buddhism is not a religion?)”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러 의견을 간추려왔다. 그 중 가장 큰 공감대를 이룬 견해는 ‘불교는 전지전능한 신의 존재, 그리고 그의 심판과 구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불교는 임의적 교리나 일방적 독선에 따라 절대선, 절대악 등 극한양분과 대립개념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리를 내세워 독단적으로 죄악과 상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좀 더 함축적으로 정리한 것도 있다. ‘불교는 서로 가르치고 밀쳐내는 상극배척(相戩排斥)이 아니라 두루 어울려 사는 상생원융(相生圓融)이 우주만물의 존재이유라 설명한다.’ 하나같이 신중하고도 자유로운 자기의견이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견해도 있다. ‘불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불교는 적대감을 조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는 적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에게는 정복하고 제거해야 할 적이 없다. 이처럼 적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불교가 어찌 종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가 하면, 한 서구의 석학은 불교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let it be)’이라 말했다. 오래 전에 들은 그 말을 얼마 전 새삼 떠올리는 뉴스를 접했다. 다음은 9월 20일자 AP통신의 일부 인용이다.

현재 여러 국가에선 특정종교를 보호하고자 종교적 신념을 바꿀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법규가 시행중이다. 9월 19일 미 국무성은 신앙의 자유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불교, 힌두교가 신앙의 주류를 이루는 국가들을 열거했다. 언급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 3개 이슬람국가는 구소련에서 독립했다. 2007년 6월 30일부터 2008년 7월 1일까지 실패를 조사한 동 보고서는 ‘해당지역의 다수민족이나 주류 종교 등을 보호하고자 정부가 직접 개인적 개종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슬람의 말레이시아, 기독교의 그리스, 유대교의 이스라엘은 ‘평화적 개종행위를 저해하는 법규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또한 힌두교의 인도는 동 실태조사가 진행될 당시 28개 주 가운데 6개 주에서 개종제한의 법규를 명문화하고 1개 주에서는 시행 중이다. 불교 주류인 스리랑카에서는 2004년 상정돼 제정된 반(反)개종 법안을 심의 중이다. 이집트,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국가들은 개종을 금하고 배교자에 가혹한 처벌법규를 적용한다. 특히 구소련의 3개 이슬람국가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행 종교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이는 신앙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 국가들을 마치 중세유럽의 종교심판관 앞에 끌려온 이단이나 마녀피고인처럼 상세한 죄목까지 들어가며 열거했다. 그러나 관련 당사국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특히 기독교 선교공세가 ‘인도의 강간(the Rape of India)’이란 인도인의 국민적 수치심까지

이야기하고 국가내부의 씨알로 커가는 스리랑카의 위기감은 모른 척 덮어뒀다.

도대체 왜 남들이 내내 살아온 대로 놔두질 못하는지? 조용히 지내고픈 이웃집의 문을 왜 흔들어야 하는지? 언뜻 근세 서구제국들의 이른바 ‘통상개방’이란 식민침탈의 예열작업이 연상되는 건 웬일일까? 혹시 이전 ‘영혼개방’의 예열작업인가?

다른 한편, 미국의 NBC는 미국인 2만 명이 해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그 가운데 75%가 여성이며 현재 전체 무슬림은 500~700만 명이래 보도했다. 또한 미군 공보처에 따르면 현역북부 미군 중 1~2만 명이 무슬림이다. 또 영국 백인 중 1만4000명이 최근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서구사회에서 불교의 급속한 발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른 순리다. 이처럼 문화든 종교든 개방이란 역지로 되지 않으며 때가 이르면 스스로 될 터이다.

번역·성유 스님  
출처: NBC, Armed Forces Press Service, Yahoo.com, The Rape of India, 기타

##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랜도 불심 4

# “깨우침의 걸림돌은 나 자신”

금년 31세인 올랜도 불심은 작년에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다. “제 나이가 서른이 갓 넘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겨우 삼라만상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나 봐요. 매사를 좀 더 진지하고 슬기롭게 바라보는 혜안(慧眼)을 지니고 싶습니다.” 이어 기자가 묻는다. “그것이 올랜도 님께서 불교에 귀의하게 된 동기랄 수 있을까요?” 그의 대답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불문에 들어선 후로 이미 몇 해가 지났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여러 잡다한 망상과 번민을 모두 떨쳐내진 못하고 있어요. 깨우침이나 자아발견이 하룻밤 사이에 이뤄질 수는 없는 거

서 저는 ‘나의 길’, 즉 오직 나에게 맞도록 뒤야진 나의 길, 여기도 저기도 치우침이 없는 나의 길을 택한 겁니다.” “아, 이제 불교철학의 핵심인 중도(中道)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하지만 세상만사가 나의 길만을 가도록 놔두질 않고 끊임없이 흔들어대니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네, 기자님과 불자인 저의 차이가 바로 그 점입니다. 저의 길은 흔들리지 않아요. 웬 줄 아세요? 제게는 불교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죠.”

참으로 명쾌하고 냉철한 자아인식이다. 게다가 그는 나 스스로 애써 깨달은 바를 ‘나의 말’로 전하고 있다. 모든 불자가 그렇듯 그 역시 무슨 경전의 말씀 중 몇 장 몇 절 운운하며 해묵은 처방전

## 주변상황이나 남 탓 않고 치우침 없는 삶 추구

### “내가 작은 배라면 불교는 닻 ... 모든 생명 존중”

“네, 하지만 올랜도 님께서 나를 가지런히 추스르는 자기정리를 위해 남달리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무엇이 깨우침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던가요?” “걸림돌이요? 아, 네, 그건 바로 나 자신이죠. 그리고 앞으로

따위를 어설프게 따라 울지 않는다. 깨우침이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장소마다 늘 새로운 수밖에 없다. 그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의 개봉을 앞두고 독립영화 지와 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을 한다.

“저는 작은 파도에도 늘 흔들리는 작은 배입니다. 저는 아무 때든 큰 파도에 휩쓸려 버릴 수 있어요. 불교는 제게 닻입니다. 저를 항상 바르게 붙들어주는 든든한 닻입니다. 불교는 흔들림이 없는 굳은 자아를 지니게 해줍니다. 불교는 제가 열심히 삶을 살고 모든 인연과 생명체를 존중하도록 늘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머물다 떠나게 될 지구촌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일깨워줍니다.”

2000년부터 환경생태보호와 관련된 다국적기업 ‘글로벌 그린’의 일원이 된 그는 런던의 자택을 폐품 재활용 및 태양에너지형으로 개조했다. 현재 그는 유니세프 국제대사로 발령대기중이다. 머잖아 그의 고운 자비공덕의 빛이 널리 펼쳐지길 기원한다. <글> 성유 스님

“저는 작은 파도에도 늘 흔들리는 작은 배입니다. 저는 아무 때든 큰 파도에 휩쓸려 버릴 수 있어요. 불교는 제게 닻입니다. 저를 항상 바르게 붙들어주는 든든한 닻입니다. 불교는 흔들림이 없는 굳은 자아를 지니게 해줍니다. 불교는 제가 열심히 삶을 살고 모든 인연과 생명체를 존중하도록 늘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머물다 떠나게 될 지구촌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일깨워줍니다.”

## 사리전시회 대성황

### 스코틀랜드 삼발라 선원서

9월 20일부터 3일간 스코틀랜드의 모레이 인근의 파인드혼 삼발라 불교선원회에서 개최된 불교사리 전시회가 수백 명의 관람자들로 대성황을 이뤘다. 스코틀

랜드에서 최초로 붓다 및 역대 조사들의 사리 300여점이 소개된 이 행사는 약 1000점의 사리를 소장한 마이트레야 기획의 2개 순회전시활동 중 일환이다. 이번 전시회 모든 사리들은 현재 인도에 건립 중인 청동대불 내에 보존될 예정이다. 출처: BTN

# “What did you want most?”

##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뭐가 절실히 필요하던가?

A young man interrupted a hermit meditating by the river. “Master, I wish to become your disciple.” “Why?” “Simple, to find the path.” “Good enough!” Then suddenly the master jumped up, grabbed him by the scruff of his neck, dragged him into the river and plunged his head under water. After holding him there for a minute, with him kicking and struggling to free himself, the master finally pulled him out of the river. When he coughed hard and finally quieted down, the master asked, “Tell me, what did you want most when you were under water.” “Air!” grumbled the man. “Very well,” said the master. “Go home now and come back to me when you want the path as much as you just wanted air.”

젊은이가 물가에서 참선 중인 은자에게 끼어들었다. “저, 선사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왜?” “죽도 좀 해보려고요.” “거 좋지!” 그러곤 선사는 붓 뜨더니 그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질질 끌고 가서 강물 속에 처박았다. 젊은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선사는 한참 뒤에야 강물에서 꺼내줬다. 그가 마구 기침을 하다가 겨우 숨을 고르자 선사가 물었다. “말해보게. 물속에 잠기니까 뭐가 절실히 필요하던가?” 젊은이가 투덜댔다. “공기죠, 뭐!” “그렇지! 그럼 이제 집으로 가게. 그리고 방금 공기만큼 죽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오게나.”

번안: 성유 스님  
그림: 이태수



## 영국 특수학습원 참선 지도 정기수업 지도할 스님 섭외

영국의 랭커셔 주에 신설된 번리 앤켄틀페이스 특수학습원에 정통 불교승려가 지도하는 참선클래스가 도입된다.

랭커셔 주 의회의 미래지향학교 설립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된 특수학습원은 9월 8일 바덴레인에서 정식으로 개교했다. 학습원의 테리 머레인 조정실장은 우선 매주 수요일 정기참선수업을 실시하고자 현재 불교승려와 협의 중이다 밝혔다.

“이번 참선클래스는 불교신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우리 지역에 신설된 특수학습원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지닌 불교승려 측이 제안했다. 앞으로 참선클래스와 더불어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작은 법당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Lancashire Telegraph

#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사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 분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 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침술,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기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동양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부산본부 : 부산시 북구 화명동 1388-8 지장사  
☎ 051)364-5586, H.P 010-3056-3315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고구려삼계탕 3층 지장사  
☎ 02)796-7579

●부산교육 :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